

헤르메스는 무슨 마음으로 그날 그녀를 안았는가

감자는 알 수 없다.

그날 이슈가르드 산 저렴한 양념포도주로 울렁이는 속, 깊은 호수처럼 빛나는 그의 눈동자는 전혀 술기운을 빌린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무언가의 확신이 있는 사람과도 같아서 그의 손길에 몸을 쉽게 맡긴 것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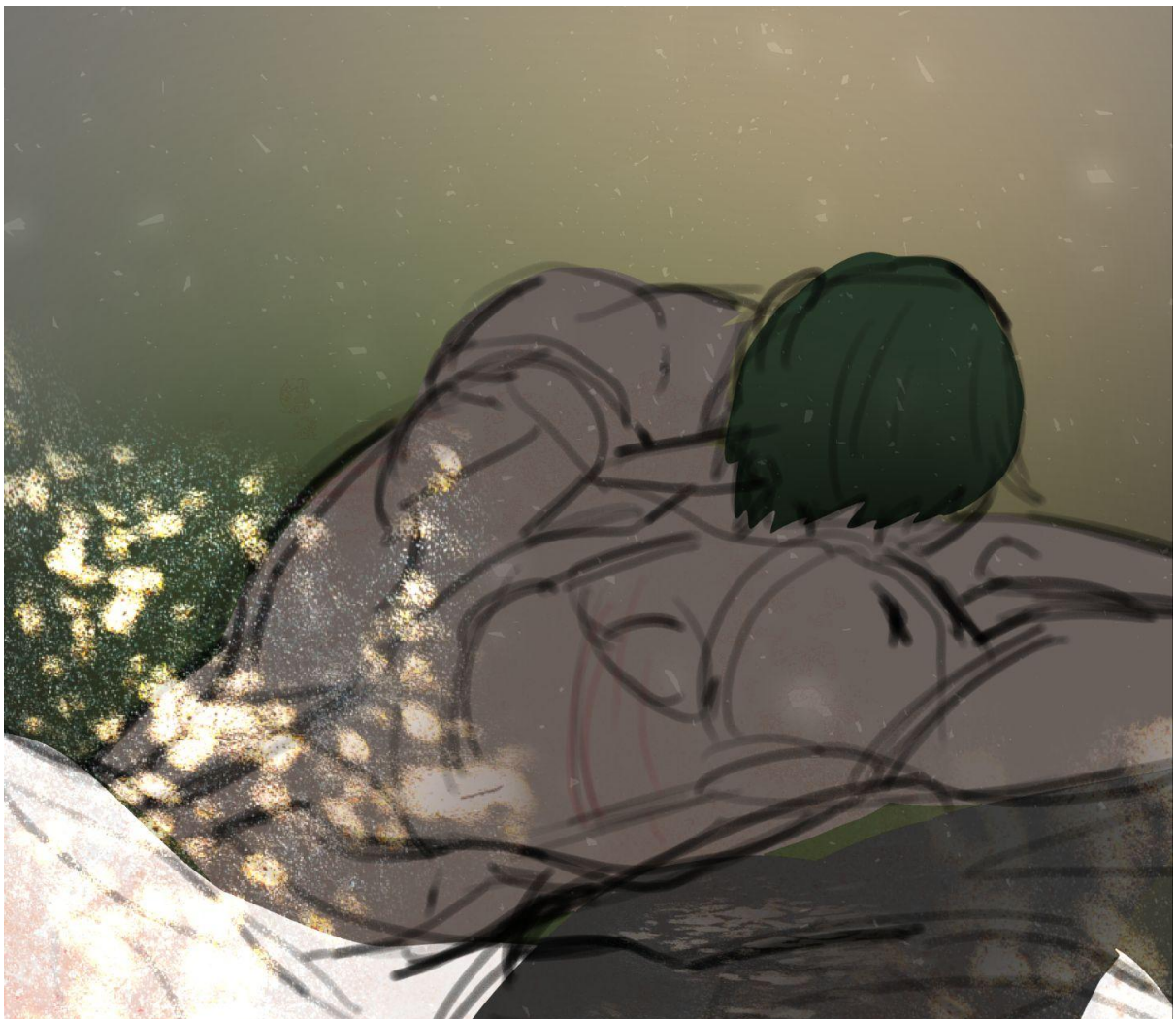
'술기운에' '실수로'

그런 말을 감자는 잘 믿지 않는 편이었다.

짧은 생 내내 술기운에 진짜 실수로 저지른 사람들은 잘 없는 것을 기억한다.

일어나 서늘한 온도의 그의 뒷목을 쓸자 움찔거렸다, 수줍은 뒤통이 어쩐지 귀엽다.

그러나 그는 그 길로 사라져 없던 일처럼 굴길래 어쩐지 잘못된 기분이 들어, 어째서 나였느냐 물어보지도 못했다.



술기운 탓이라면 누구라도 좋았던 걸까? 나는 아니었는데...

어째서 저였나요? 팔뚝에 쏟아지는 애정과 비슷한 잔 입맞춤에 속은 걸까?

그가 어떠한 말을 꺼내다 말았을 때에. 그때, 감자는 검게 물든 엘피스 꽃을 어떻게 하지도 못한채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지금. 그것을 물어볼 수 있는 때는 앞으로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다.
그야 그 기억을 아몬이 알려주고 싶지 않다고 했고, 그는 별바다에 있으니 말이다.

‘헤르메스 알아요? 당신이 환생한 아몬이란 사람은 성격이 너무 나빠서 별로였어요.
저는 아직도 가끔 엘피스에 가요,
하지만 당신은 한번도 모습을 보이지 않더라구요,

다프니스는 데려가지 않아요.
이 애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직 새벽의 사람들만 알고 있기로 했거든요.
아직은 본인도 포함이에요.’

여하간에 아이의 미래를 위해 이 글은 곧 태워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감자 그녀는
일기장 한 구석을 찢어 벽난로에 넣었다.

헤르메스와 단 둘이 남았을 때 술을 권했다가 사건이 발생하고 아이도 생겨버린
세계선입니다.
아이감자와 다르게 큰 건강상의 고난은 없었지만 아이를 위해서 새벽도 감자도 최선을 다
하며 사랑 속에 잘 자랍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다프니스로 훗날 갈론드 아이언 왁스에서 활약을 할지도 모른다는
설정입니다.